

## 최초의 사이버 대학 운영 현황과 시사점

조 규 향 | 서울디지털대 총장

### I. 지식의 대중화와 대학의 역할 변화

과거 일반인들이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생활 하는데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은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당시의 교육 기회가 신분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이나 종교인만이 그런 기회를 누린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 인간의 수명이 길지 않고 인구의 대다수가 높은 교육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농업이나 수공업 등 단순 반복적인 생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과거 70세를 지칭하던 '고희(古稀)'라는 표현이 무색해지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로 신문과 방송이 시시각각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인들에게도 과거보다 높은 교육 수준이 요구되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수혜자는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난 상태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려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 해도 자신이 전공한 분야 외의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비록 전공한 분야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나타나는 신지식 때문에 재교육을 필요

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제 대학교육은 10대 후반의 적령기에만 받는 것도, 평생 한 번만 받는 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언제까지나 대학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졸업하여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형편이다. 설령 야간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매학기마다 학교에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또 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교육법에 의거 사이버 대학(원격대학, 가상 대학)이 출현하였다.

원격 교육은 본래 많지 않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살고 있는 호주 같은 나라처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습자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현한 것으로 그 유래를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순히 지역적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습 시간이 불규칙하여 교수자와 대면키 어려운 사람들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습 욕구를 지닌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덧붙여져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집체 교육을 대

신할 교육 방법으로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오랜 기간 교육행정에 몸 담아 왔고 또 대학 운영도 짧은 기간 경험해 본 사람으로, 우리 교육사에서 처음 시작한 사이버 대학의 하나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운영에 관여하여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경험한 일에 대하여 진솔하게 밝힘으로써 사이버 대학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코자 하며, 아울러 다소간의 불편함과 아쉬움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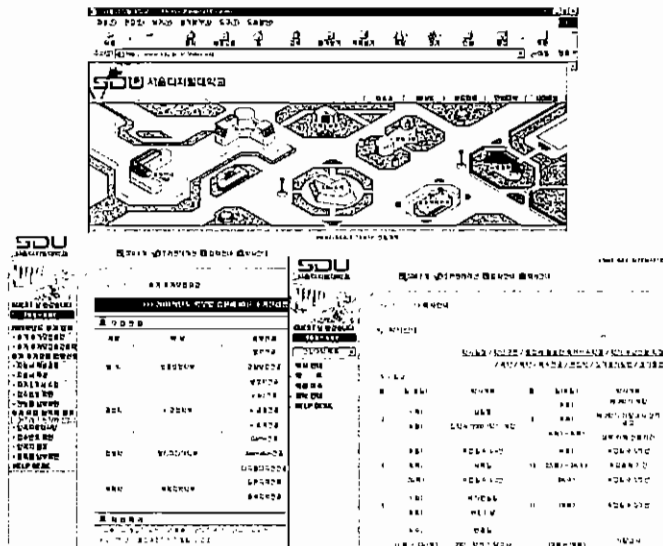
### 1. 학교 개황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교(www.sdu.ac.kr)는 지난 2000년 11월 30일 다른 6개의 4년제 과정 대학교와 함께 최초의 가상 교육기관으로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아 4년제 정규 대학으로 출발하였다. 본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

에게는 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있어 아무런 법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e-경영학부, 법률행정학부, 국제지역학부, 멀티미디어학부의 4개 학부에 11개 전공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800명이다. 지난 3월 첫 입학생 모집시 총 2,223명이 지원하여 2.78대 1의 입시경쟁률을 보였고, 최종 733명이 등록을 마쳤다. 입학생의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46%,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7.5%를 차지하여 20~30대가 주류를 이루었다. 재학생 중 직장인이 77%를 차지하였고, 11%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태에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학 동기도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40%, 직장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이 18%로 나타나 직업과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면을 살펴보면 91%의 학생이 펜터엄 II 이상의 컴퓨터를 갖고 있었고 ADSL, LAN, ISDN 등의 통신 환경이 94%를 차지하여 인터넷 상으로 공부함에 있어 충분한 환경을 구축



“

사이버 강의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내용을 집약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휴강도 없으며,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군더더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아  
비록 강의 시간 자체는 짧지만 수업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학습 시간은 수업 수강을 포함하여 3시간 내외이며 주로 심야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학생이 하루 평균 1시간도 자기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업 참석률도 평균 88.8%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3학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 없이 곧바로 2학기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등록률이 90%에 이르고 있어 입학생 중 중도 탈락자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한편 해외 및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학생 비율은 31.5%이며 장애인이 10명,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는 19명으로 확인되었다.

또 교수는 전임강사 이상 교원이 7명, 겸임 교원이 11명이며, 기존 대학과는 달리 강의 콘텐츠의 제작 및 강의 운영에 참여하여 교원을 보조하는 인력이 상당수 있다.

## 2. 강의 방식과 평가 방법

사이버 대학에 몸담고 있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이다. 사이버 대학의 강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 즉 인터넷의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학생의 ID와 암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을 '로그인'이라 하는데 로그인 후에는 강의실과 게시판 등이 있는 가상 학교에 등교하게 된다. 게시판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혹은 학생 상호간에 알리는 사항을 확인한 후에는 강의실에 입장하여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거나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혹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멀티미디어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어 있는데 동영상을 통하여 교수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화면에는 강의 내용이 디스플레이 된다. 또 강의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통하여 진행되는 강의도 있는데, 예컨대 화면상의 질문에 답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수업 내용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TV방송 강의와는 달리 학생들이 학습에 편리하고 적절한 시간에 미리 계획을 세워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학습 효과 면에서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버 강의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내용을 집약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휴강도 없으며, 수업과 관련되지 않

은 군더더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아 비록 강의 시간 자체는 짧지만 수업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수들은 이러한 강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강의와 비교하면 약 2~3배 정도의 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질문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된 질문에 대해서는 약 80%정도의 비율로 24시간 이내에 교수가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 비대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300건 남짓한 질의응답을 보였으며, 주고받은 질의응답이 1,000건에 가까운 교과목도 있었다. 이는 온라인 교육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모두 열려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들은 수업 내용만이 아니라 방법에 관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매주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수업 내용과 관련된 퀴즈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의지가 약한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업을 충실히 듣지 않았거나 교수가 부여한 자기 학습을 부진하게 소화한 경우에는 퀴즈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어렵다. 또 학생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의도로 과목별로 1회 이상의 과제물을 부여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집합하여 치르는 시험은 없으며,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시험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학습(self learning)의 취지에 맞추어 아무런 감독 없이 각자 치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생별로 서로 다른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였고,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지문 인식 마우스 또는 음성 인식 시스템의 사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험문제는 진위형,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실습한 결과를 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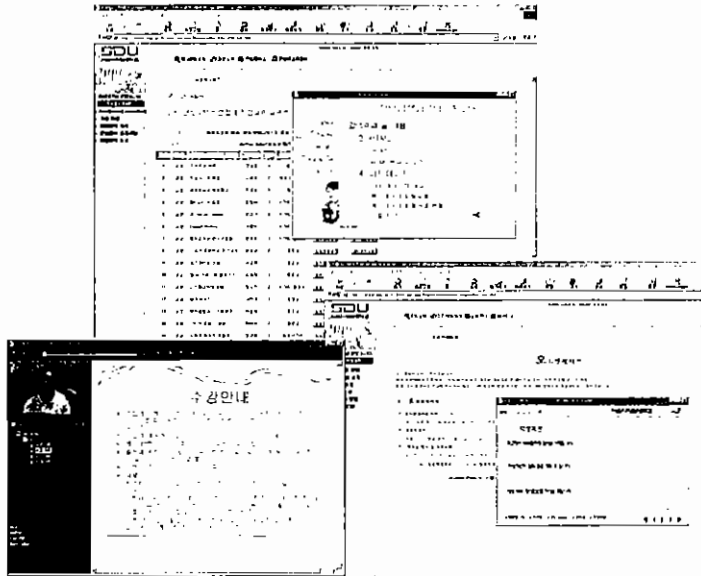
이상에서 기술한 수업 참여, 퀴즈 응시, 과제물 제출, 기타 질의응답 또는 토론 참여 등을 기초로 하여 교수별로 정한 배점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첫 학기 성적은 A비율이 35%로, F비율은 19%로 나타나 학습에 적응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3. 학내 활동

서울디지털대학교에는 다양한 자생적 동아리와 스터디 그룹이 있고, 비록 특정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 학부별 게시판(BBS)을 통하여 활발한 의견 개진과 자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부별 BBS에는 한 학기 동안 2,000~3,000건의 글들이 올라와 학생 1인당 평균 10~15건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생 전체가 모이는 만남의 날 행사, 스승의 날 행사, MT, 소그룹별 모임 등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다지고 있으며, 필자가 보기에는 학생 상호간의 유대 관계는 어느 대학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돈독한 것 같다.

특히 10대에서 60대에 걸쳐 있는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 및 전국적인 거주 분포 등으로 인하여 학생 상호간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어 이것이 단합과 친밀한 유대 관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리는 주로 학업과 관련된 것으로, 멀티미디어나 e-business와 관련된 동아리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에 관한 관심과 독자적 학습에 따른 우려로 인하여 특히 어학을 중심으로 하는 스터디 그룹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과제물 제출이나 시험에 대비하여 일일적인 스터디 그룹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모임이나 온라인 상의 유대 관계가 탈락률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학생회는 아직 조직되지 않고 있지만 각 학부별로는 모두 자생적인 학생 대표 및 임원진이 선출되었고 특히 법률행정학부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학생 대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오프라인 상의 어떤 활동이라도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다는 전례를 남겼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후보 추천, 공약 제시, 선거 유세, 투개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시행한 것은 본교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요약컨대, 온라인 상의 대학이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학생과 교수 혹은 학생 상호간 관계나 학생 자치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의문은 실제 학교가 개교한 후 완전히 불식되었으며, 오히려 지나치리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한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 교류로 인해 기존의 어떤 대학보다 학생 중심의 친숙하고 끈끈한 대학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 4. 학사운영상의 특징과 그 영향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디지털대학교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학사 관리와 관련된 융통성이다. 우선 최소 졸업 학점은 140학점이며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영역과 전공영역, 자유선택으로 나누어진다. 교양영역 36학점과 전공영역 48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복수전공이 가능하다. 또 3학기제로 운영하여 1, 3학기는 각 20학점씩 수강 가능하며 2학기는 10학점 수강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간 50학점 이수를 한다면 3년만에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 아울러 재학 연한

에는 제한이 없으나 자동 휴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학기 휴학 신청을 해야만 한다.

둘째, 모든 학사운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산 시스템의 운영이 학교의 모든 운영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학교의 컴퓨터 서버는 철저한 보안과 데이터 백업을 기본으로 함은 물론 전산 요원과 일반 교직원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하여 학사 행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전산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초 일반 대학에 준하여 개발되었던 전산 시스템은 온라인 대학만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수없이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한 예로 교수나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출결이나 성적 등을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도 자신의 수강 현황, 출석 기록, 퀴즈 응시 현황, 과제물 제출 현황 등을 한 순간에 일목 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일반 대학에서는 구현되지 않는다.

셋째, 학사운영이 공개되며 학생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이버 대학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또 이러한 정보의 공개에 따른 의사 결정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의 Q&A 게시판에는 일 평균 30개 이상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2~3시간 안에 답변이 이루어진다. 또 각 학부별 게시판과 수업별 게시판에도 적지 않은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강이나 학생을 고려한 행정은 지지와 칭찬을 얻지만 어설픈 내용의 강이나 학생을 무시한 학사 행정은 즉각적인 비난을 얻게 되고, 지취를 감출 수밖에 없다. 이처럼 활발한 의견 개선과 응답 의무는 초창기 학사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건설적인 대안들이 적극 개선되면서 신뢰 확보의 기본 틀로 작용되고 있다.

넷째, 강의 수강이나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협력 체계의 가동을 들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의 강의 콘텐츠 제작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며, 교수 개인만의 역량이 아니라 지원 시스템의 협력에 의해 완성된다. 따라서 일반 대학에서와 같이 교수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강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콘텐츠 제작 지원 인력의 지원 및 관련 장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는 개강 3개월 이전에 교수자와 제작 지원팀이 강의 기획 회의를 거쳐 강의 형태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며, 개강 전에 강의 제작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또 강의 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전문가 이외에 교육공학을 전공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대학의 출현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버 대학의 출현으로 인해 이제까지 대학교육에 대한 열의는 있지만 지리적 공간이나 시간대의 불일치로 인해 입학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사이버 대학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학생이 직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확하게 증명된다. 따라서 향후 대학교육의 보편화는 좀더 넓고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기존 대학의 변화이다. 기존 대학들 중 일부는 대학이 갖는 본연의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을 모두 수행하려다가 결국은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해 내지 못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 소재 일부 대학은 학생의 감소로 인해 학교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이버 대학은 이러한 대학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학점 교류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부분은 본교 교수들에게 강의를 맡기고 그렇지 못한 부

“

사이버 대학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또 이러한 정보의 공개에 따른 의사 결정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분은 사이버 대학과 제휴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많은 대학이 이미 이러한 학점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큰 교류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운영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제까지 대학에 속한 구성원들의 역할과 지위가 사이버 대학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상태로 바뀌어져 있다.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에 교직원의 협력이 투입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도 학교측과 교수에게 거침없는 질의와 제안을 한다. 또 전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직원을 대신하여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학생도 있다.

교수와 교직원도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 대학과는 사뭇 다르다. 어느 면에서는 마치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의견 수렴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일반 대학에도 빠르게 파급되어 향후 대학 운영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Ⅲ. 기존 대학과의 차이

이상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사이버 대학의 운영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제 사이버 대학과 기존 대학과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르고 있으나 사이버 대학은 그 설립 및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평생교육법이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평생교육법 제 22조). 그러나 평생교육법에서는 원격대학의 설립 요건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교 운영에서는 일반 대학과 다른 점이 없다.

둘째, 학습 방법에 있어 기존 대학은 대면 강의 및 토론 등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사이버 대학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물론 사이버 공간상에서도 게시판이나 채팅(인터넷상의 상대방과 문자 혹은 동영상 등으로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용한 토론은 가능하다. 또 기존 대학의 교수 방법은 교수자의 육성 강의를 대부분인 것에 반해 사이버 대학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셋째, 사이버 대학의 강좌는 매우 다양하다. 즉 기존의 대학이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교수를 확보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수강생이 있어야 하지만, 사이버 대학의 경우 강의실에 대한 제약

“

사이버 대학의 강좌는 매우 다양하다. 즉 기존의 대학이 강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교수를 확보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수강생이 있어야 하지만, 사이버 대학의 경우 강의실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강의를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사 확보에 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

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강의를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강사 확보에 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여러 대학과의 학점 교류를 통해 각 대학에서 소수의 인원이 수강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강좌 개설에 필요한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강좌 개설이 가능한 것이다.

넷째, 공간 제약에서 자유롭다. 공간 면에 있어 기존 대학은 강의실, 운동장, 교수 연구실 및 기타 부대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사이버 대학은 교수 연구실과 강의 제작을 위한 부대 시설 등만을 필요로 하므로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공간적 제약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재원이나 벽지 근무자도 서울에 있는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장소가 어디라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출장이나 휴가 중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섯째, 수업 시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존 대학생들이 특정 교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동 교수의 수업 시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듣고 싶은 강의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사이버 대학의 강의는 수강자 본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언제라도 수

강이 가능하며 반복 수강도 가능하다. 따라서 심야나 주말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해가 부진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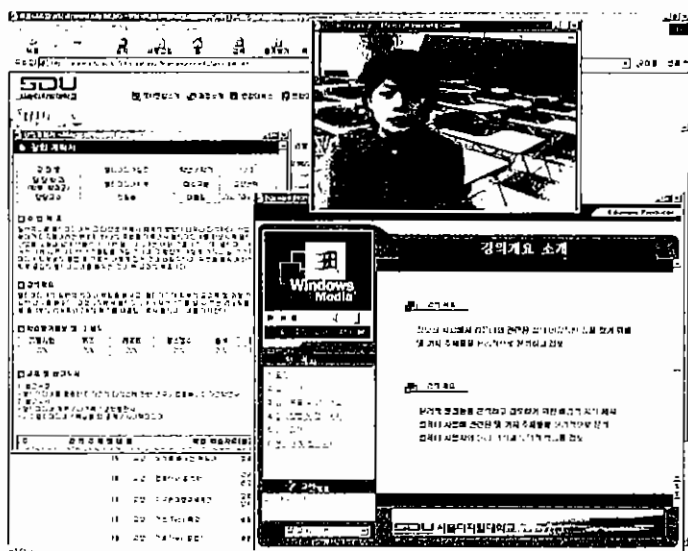
여섯째, 학생 구성면에서 기존 대학들이 거의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전업으로 학업만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이버 대학은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대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업 내용이나 과제 부여, 평가 방법 등에 고려할 점이 있다.

일곱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차이점은, 방송통신대학이 방송 매체를 통한 강의를 하고 있어 특정 시간대에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점, 출석 수업과 출석 평가가 있어 출장, 휴가, 교대 근무 등의 변수가 있을 경우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도 차이로 보여진다.

#### IV. 문제점과 대안

사이버 대학은 2000년 말에 처음 설립인가를 받아 불과 수개월만에 신입생을 모집하여 학사운영에 들어간 상태이다. 아직 일반인들에게 그 존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 등도 명확히 정비되지 못했다. 한 예로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정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의 학생들은 병역 연기 혜택이나 학자금 용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정부 관련 부처에서 기존의 대학과 동일하게 각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후 사회에서 생활하다 대학교육에 대한 동경을 안고 입학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실망감과 좌절을 주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 운영에 파하기 어려운 재정과도 관련된 정원 문제이다. 사이버 대학의 등록금은 기존 국립대학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경우 800명이 정원으로 4학년이 모두 들어오더라도 3,200명이며 이 인원이 모두 등록금을 낸다고 하면 32억 원이 된다. 이 돈은 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 투입된 시스템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일년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어떤 이는 사이버 대학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강

의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천만 원에 가깝고 많은 것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이것도 순수하게 강의 콘텐츠 제작 및 강사료 등에 투입되는 비용만을 계산한 것이며, 학사 행정 및 강의 운영에 들어가는 정보통신 비용을 모두 감안하면 훨씬 더 높아진다. 학교를 운영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정부 등 외부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등록금만으로도 운영되고 다소의 확장 재투자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은 30만 명이 넘는 정원을 운영하고 국가의 지원도 받는데 사이버 대학들은 아무런 정부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정원의 제약만을 받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 정원에 탄력성을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차피 적정 수준의 교수와 교직원을 확보할 경우 동일한 강의 콘텐츠를 많은 학생이 수강할수록 학생 1인당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 정원의 확대에 의한 인구의 집중이나 학교 시설의 협소함 등이 나타날 우려가 없는 현실에

서 직장인, 해외 교포, 지방 거주자, 군인 및 경찰,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학생 정원의 제한이 있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본다.

다른 하나의 색다른 문제점은 강의 진행에 있어서의 교수의 적응 문제이다. 이제까지 교수는 비록 시간강사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각듯한 대접과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상의 학생들은 기존 대학의 학생과는 그 성향이 사뭇 달라 빠르고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므로 처음 강의를 하는 교수는 이러한 반응에 적응하기 어렵다. 질문 또는 의견 개진이 무례하고 과다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교수는 일단 자신의 권위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교류와 대화를 갖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출석률과 학습 성취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수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 결과를 실천하려는 진취적인 교수들이 아쉽다고 하겠다.

## V. 결어

세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평생 단 한 번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제는 평생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버 대학의 출현은 평생을 공부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기존의 대학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대학이 줄 수 없는 교육 방법이다.

물론 기존의 대학도 점진적으로 사이버 강의를 도입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또 아직은 사이버 강의만으로 모든 교육을 완전하게 실시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도 일부 공감한다. 이는 결국 사이버 공간도 현실 공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현실 공간과 별개로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대학이 출범 첫 학기를 마쳤다. 필자는 이제 한국의 대학이 지금까지의 타성에서 벗어나 학생에게 다가가는 대학, 누구에게나 열려진 대학으로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서 사이버 대학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필자**

### 조규향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행정학 석사, 순천향대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교육부 차관과 국정교과서(주) 사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대통령 사회복지 수석비서관,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교육정책개발사』가 있다.